



**웃으며... 신세대 입영 풍경** 28일 광주시 북구 육군 제31사단(사단장 박병기) 총장관에서 입영장병 220명과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영문화제'에서 한 어머니가 입영을 앞둔 아들과 밝은 모습으로 포옹하고 있다. 육군 31사단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웃으며 입영하자'를 주제로 난타·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대통령 전남지역 핵심공약 '동서통합지대' '10+α' 정부 "지자체 알아서 계획 세워라"

### 밀그림·예산 '나 몰라라'...전남도 자체 연구용역

박근혜 정부가 내건 전남지역 핵심 공약인 '동서통합지대'와 '10+α' 중 추 도시권 육성전략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구체적인 밀그림이나 예산 지원 약속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무작정 "지자체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10+α'는 연구용역비도 책정되지 않았고, 부산항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경남·부산은 동서통합지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영호남이 참여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 통해 동서통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삼진강 양안의 전남 동부·경남 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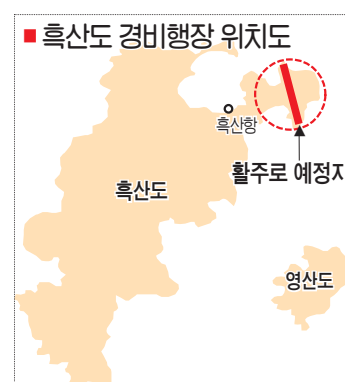
지역을 개발하는 동서통합지대 호남 권역의 기본 구상을 짜는 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게 의뢰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짤 뒤 오는 10월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자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전남도는 이 연구용역을 위해 다음 달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고 1억원과 전남도·경남도 각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들여 동서통합지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주한 부산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용역 예산만 1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연구용역을 지역 개발 연구용역비의 10%밖에 되

지 않는 국고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모든 것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겼고, 일선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이 용역에 큰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꼴이다.  
특히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기본계획을 짜야 하는 전남도와 경남도가 애를 먹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지역간 실질적 교류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과 한려대교·목포~부산KTX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방침이지만 정부의 예산 규모를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도도 29개 건의사업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통합지대 계획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가 나오고 있고, 경남지역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다. 경남은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추진되는 항만 정책에 부산항을 해양특구로 조성하는 안을 포함 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도 구체적인 밀그림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0+α"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적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낙후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개발 계획은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꼭 '10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10+α'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호남 소의 정책인 '5+2 광역경제권'처럼 이 지역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흑산도~서울 경비행기 뜬다

소형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내년 착공  
1400억원 들여...2017년부터 50인승 운행



서울과 흑산도를 1시간에 연결하는 신안 흑산도 소형공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내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흑산도 소형공항은 오는 2016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투입해 신안 흑산면 61만 4487㎡에 길이 1200m의 활주로와 부대시설을 갖춘 소형으로 건설된다. 2017년 50인승 항공기를 운행해 김포, 무안, 김해공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해외공항과도 연계한 국내 및 국

제 노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KTX와 여객선으로 8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돼 연평균 관광객이 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방부 "5·18, 북한군 침투 사실 없다"

오늘 공식 입장 표명...5·18왜곡대책위, 청와대·국무총리 등 방문

북한군 탈북자가 일부 종편에 출연,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명이 투입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29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진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9일 광주시에 공식 공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북한군 탈북자의 주장과 관

련,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군 침투 사실은 없다'고 결론이 났다는 점을 인용하며 '과거사 조사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가족에

## "전두환 추징금 집행 압수수색 불사"

검찰총장 가시적 성과 주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사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필요시 압수수색 등 임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주례간부회의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5월 25일 발매

키농샤  
매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커버스토리  
**매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회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스페셜 인터뷰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 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화동행, 편편 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이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력"

이달의 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화동행, 편편 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이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력"